

# 개헌 · 정개특위-사개특위 구성 착수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여야는 오는 9일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급주 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2월 임기국회 일정도 급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역시 이번 주 논의 운영위 소집 여부, UAE 특사 칼둔 방한 후 결정

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과 소위 구성 등 특위 활동이 착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2월1일부터 당겨서 하지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번 주말에 수석회 회동을 가지고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야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를 구성을 시한인 10일까지 완료키로 하고,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을 위해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미래연구원 설립 준비위원장으로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으로 선임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의혹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

회 소집에 대해서는 여당이 칼둔 칼리와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장 방한 이후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정 의장에게 이날 오후 예방 예정인 칼둔 청장 비공개 면담에 원내대표도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같은 정당이 왔을 때 배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국회 의장이 점심 식사 이후 생각해보고 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방한 이후 국민 의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운영위를 열고 그후 국정조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선 방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원순에 도전하는 여권인사 누구?

수도 서울 관장 · 대권후보 반열 오를수 있는 직위

오는 6월13일 열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현 시장의 야성에 도전하려는 여권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의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동시에 대권후보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직위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자리다.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어서 대권을 꿈꾸는 현역의원들에게는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울시장은 한층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됐다. 당내 경쟁에서의 승리가 시장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만 현역인 박 시장과의 경쟁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박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거나 고향 경남에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박 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후보직을 놓고 치열한 내부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구로를 4인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2011년부터 보여준 6년간의 시장에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서울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비지근한" 시정으로는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설명이다.

박 전 대표와 박 시장간 인연도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야권 통합후보 자리를 두고 박 시장과 경선했으나 패했다. 그런 박 전 대표가 약 7년 만에 다시 박 시장과 경쟁하게 돼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여성 광역단체장이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역시 박 전 원내대표에게는 의미가 있다.

서대문갑에서 3선을 한 이상호 전 원내대표 역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장직에 관심을 가졌던 이인영 의원의 합의에 따라 당내 88그룹 단일후보격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평판이 좋다는 평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박원순 희망캠프 공동대변인 역임해 박 시장과도 인연이 있다.

다만 우 전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6년 시장에는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박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서울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권과 서울시,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격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동대문을에서 3선을 한 민병두 의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피격 공약을 내놓는 등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한 사람의 상상력에 서울을 12년간 맡아기에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숨 가쁘고 서울이 변화에 뒤떨어 있다"고 말하는 등 박 시장을 집중 견제하고 있다.

민 의원은 박 시장의 대표 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박 시장의 대표작인 서울역 앞 서울로 등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다. 그러나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대신 조망권을 빼앗고 주변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재생"이라고 말했다.

## 안희정, 충남도정서 마음 떠났나?

찾은 해외출장으로 임기 때우기 구설...도정 공백 눈총

안희정 충남지사의 잦은 해외 출장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낙선한 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매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올해도 1월부터 임기말까지 계속 해외출장이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안 지사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해외 출장 횟수는 매일 한차례씩 5차례인 데다 출장 일수만 해도 무려 한달(30일)에 달한다.

지난해 송년기자회견서 3선 도시사 및 국회의원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 지사는 올해도 1월 20~28일 9일 동안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다.

오는 2월4~11일 8일 동안 외교부 초청 행사차 호주를 방문한다. 이어 3월과 4월에 중국 및 일본 교류단체 순방이 예고돼 있다.

특히 도정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는 전문통역사까지 대동하고 다녀오게 된다.

도시사 출장비만 해도 항공료 1등석, 호텔 스위트룸 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전문통역사의 항공료와 체재비까지 도민들의 세금을 축내야 한다.



또 안 지사 스위스 출장 기간에 충남도의회 올해 첫 회의가 열린다. 물론 의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겠지만, 과연 도의회에서 조용히 넘어갈 지 의문이다.

2월 안 지사의 호주 출장은 외교부에서 출장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기 말까지 도정 운영을 마무리하겠다"는 안 지사의 이같은 도정 공백에 대해 민중과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도정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해외출장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것이 도정내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 안철수 "바른정당과 정체성 차이 없어...중재안? 중재할 게 있나?"

"현장서 충분히 실무선 접점 찾을 수 있을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북정책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북핵 문제, 미사일 도발이 심각한 와중에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가 많지가 않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달성하려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아직 통합한다고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다"며 "통합신당 정체성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발언. 대북정책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민의당에 통합 전 정체성 정리를 요구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신당 강령 토론회에

서 햇볕정책 포함 찬반 설전이 벌어지는 등 상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금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충분히 실무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정책 부분에서 바른정당에 양보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도대체 뭘 양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박주선 국회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내 합류파 자신의 '즉각시회'를 포함한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중재할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무슨 중재를 하고 협상을 하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재하려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설득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